화순군, 코로나19 대응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적용

지역 농촌 일손 부족·경영 부담 완화 이바지

화순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하는 모든 기종에 ‘임대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배송비는 감면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5만 원 미만은 1만 원, 임대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만 5000원, 임대료 10만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화순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소비 위축과 농촌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

지난해 3473가구에 임대료 1억 2000만 원을 감면했고, 고령층과 영농 취약 계층 농업인에게 556차례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 횟수는 40%, 배송 서비스는 54% 증가했다.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 2곳을 운영하며 68종 42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 건수는 2017년도 3167건, 2018년도 3593건, 2019년 443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감면 기간에만 5000여 건을 임대하며 지역 농촌 일손 부족과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 농기계 수리·점검을 강화하는 등 임대 농기계 회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2020년 사회조사 결과 공표

‘삶 만족감’ 10점 만점에 6점 이상

구례군은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2020년 구례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사회조사 보고서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표본 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노동과 경제 등 11개 지표 12개 항목을 설문 조사해 응답한 결과이다.

사회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군민 중 3명 중 2명은 ‘삶에 대한 만족감’ 점수비율을 10점 만점에 6점 이상으로 응답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90.0%로 조사되었으며‘평균 소통인원’은 5명이라고 응답했다.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는 ‘신종전염병 불안’에 대한 응답이 51.0%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생교육 참여율의 경우 13.7%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교육프로그램을 알지 못 해라고 응답한 군민이 많았다.

가정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가족관계’가 62.3%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한 불만족도는 높았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대비 10.6% 증가한 46.9%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원 이용 희망 서비스는 예방접종(32.0%), 건강검진(15.0%), 진료(14.7%), 방문건강관리(10.6%)순이다. 방문건강관리의 경우 면지역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보행환경 조사결과 10명 중 7명은 보행환경에 만족 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못 한 주된 이유는 보행을 위한 인도부족(37.0%)과 차량의 난폭 및 과속운행과 신호위반(22%), 상가시설물 등의 보행방해(16.2%)순으로 나타났다.

군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군민 2명 중 1명(45.9%)은 군내 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청결도(67.0%), 안전도(66.1%), 노선(55.7%), 배차간격(44.1%)순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향후 주요 군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조사 보고서는 구례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돌봄 품앗이 공간 마련

여가부 공모사업 선정…남평 양우내안애 아파트 유휴공간 활용

나주시가 부모와 아동의 행복을 위한 가족 공동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첫 운영한다.

나주시는 5일 남평읍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내 아름드리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간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함께 돌보는 가족 공동체 공간이다.

지난 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조성됐으며 신한금융재단에서 리모델링과 기자재 비용을 지원했다.

당초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아파트 시설 유휴공간을 2025년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활용하게 됐다.

총 면적 111.05㎡규모의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 품앗이, 장난감·도서 대여, 문화체험, 동화구연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를 갖췄다.

나주시가 관리하고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아동 돌봄 공백해소는 물론 방과 후, 방학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나눔터 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터 개소식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잠정 연기됐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오는 31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2)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우리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 확보가 가능한 연세액 공제신청을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승진 공무원에 색다른 임용장 수여 ‘눈길’

조선시대 ‘교지’ 형식

장성군이 1월 1일자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자 3명에게 교지(敎旨) 형식으로 제작된 임용장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교지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문무관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장이다. 장성군이 수여한 임용장은 종이를 천에 붙인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내용도 붓글씨로 작성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관리자로서 높은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지 임용장을 마련했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군은 이번 임용장 수여를 시작으로, 앞으로 사무관 이상 승진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임용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균 〈 도문대작 〉